국토교통부		보도설명자료	
		배포일시	2020. 7. 1.(수) / 총 2매(본문 2)
담당 부서	해외건설지원과	담 당 자	·과장 김기용, 사무관 이성훈, 사무관 홍복의, 주무관 오영석 ·☎ (044) 201-3527, 3529
보 도 일 시		배포 즉시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	

정부는 해외건설근로자 안전을 위해 모든 지원방안을 강구하겠습니다

< 관련 보도내용(동아일보, '20.7.1) >

◈ UAE 이어 이라크…중동 한국근로자 5,625명이 불안하다

- 이라크 하루 확진자 2,000명, UAE서도 코로나 빠르게 번져
- 해외건설현장 대응 가이드라인을 건설업체에 배포, 국내 방역지침과 별 차이없어
- 의료 인프라가 열악한 경우가 많아, 별도 지침 필요

□ **국토교통부**(장관 김현미)는 해외 건설현장 내 코로나19 확진·사망자 발생에 대응하여 관계부처·건설기업 등과 **신속연락체계를 구축**하여 코로나19 관련 모든 상황을 **긴밀히 주시**하면서, **건설근로자 안전을 위한 모든 지원방안을 강구**하고 있습니다.

○ 지난달 규제샌드박스(6.25, 산업부)를 통해 임시허가받은 **「재외국민 비대면 진료서비스」**가 해외건설현장에 조속히 적용되어, 해외 **건설근로자들이 적시 상담·진료** 받을 수 있도록 모든 **행정적 지원**을 지속할 계획입니다.

* 현재 일부현장은 「전화상담·처방 한시적 허용」(2.25, 복지부)을 활용 중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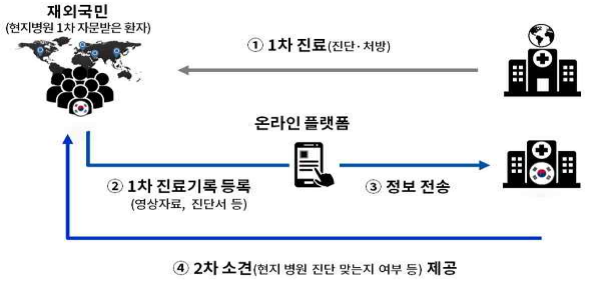
< 재외국민 비대면 진료·상담 서비스 개요 >

○ (**개요**) 의료기관은 재외국민이 **온라인 플랫폼**에 기재한 내용 바탕, **전화·화상**을 통해 **재외국민에 의료상담·진료 등의 서비스를 제공**하고, 환자 요청시 **의료진이 판단하여 처방전을 발급**

○ (**심의결과**) 신청기관(인하대병원, 라이프시맨틱스)에 2년 임시허가(6.25)

<진단·상담>

<2차소견>



* 출처 : 산업통상자원부(6.25 보도참고자료 “규제샌드박스, 민-관 협업…”)

○ 해외 건설현장 내 **중증환자 발생시, 국내로 신속히 이송하여 집중 치료**받을 수 있도록 제반절차에 대해 **관계기관, 기업, 상대국가와 적극 협의**하고,

○ 또한, 기존에 배포한 **「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-19 예방 및 확산 방지를 위한 해외건설현장 대응 가이드라인***」(5.13)도 해외건설현장 내 상황변화 등을 **지속 반영·개정**하겠습니다.

* 해외 건설현장 내 방역에 대한 기본지침으로, 각 건설사에서 현지 여건, 현장 상황을 반영한 ‘현장별 방역지침’을 마련하기 위한 기준

□ 그간 국토교통부는 3월부터 매월 **민·관 합동 관계기관 회의를 개최**하여 방역조치 상황을 공유하면서 지원방안을 논의하였으며,

○ 관계부처와 긴밀히 협의하여 **해외건설현장 근로자 7,305명**에게 **262,980개 마스크의 반출을 허용**(5.21, 6.17)하는 등 방역물품을 지원하였습니다.

○ 향후 **코로나19 감염병 확진자 의심·발생현장**에서 건설근로자들이 **방역 수칙**을 철저히 준수할 수 있도록, 관계부처, 건설기업들과의 협조체계를 지속 유지하겠습니다.

이 보도설명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
해외건설지원과 이성훈 사무관(☎044-201-3527)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